



안전문화의 생활화

이현규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지 난 9월 10일 제3회 「원자력 안전의 날」 행사 를 성황리에 마쳤다. 94년 9월 과학기술처가 원자력 안전 정책 성명을 발표한 이후 원자력 안전 문화를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 으로 「원자력 안전의 날」을 제정·시행한 지 세 돌을 맞 이한 셈이다.

금년에도 기념식 거행과 함께 원자력 안전 분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있었고, 행사일을 전후하여 각종 심포지엄, 좌담회, 특별 강좌, 영화 상영, 가두 캠페인 등 일 반 대중과 청소년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원자력 관련 기관에서는 자체 시설 개방, 안전 결의 대회, 주민 초청 간담회 등을 가졌다.

필자는 해가 거듭될수록 참여 기관의 수가 대폭 늘어 날 뿐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을 꼭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원자력 안전 문제가 범국민적인 관심사로 부각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특히 최근 발생한 일련의 대형 사고 등을 직시하면서 질서와 절차를 존중하고 항상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 안전 문화의 생활화가 국가 발전과 개인 생활의 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된다.

원자력의 최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의 TMI 사고나 옛 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등에 비추어 볼 때 기술적 측 면에서나 사회적 측면에서 안전 문제에 관한 한 결코 방심이나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자력계 종사자가 항상 안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 을 가지고 늘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이다.

금년도 원자력 안전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된 각종 행 사들이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분야에서 꾸 준히 정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격려의 기회가 되고, 평소 안전 마인드에 대해 소홀히 해온 분들에게는 새로 운 각오를 다짐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나라의 원자력 산업 및 기술 수준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으며, 안전 기술 분야 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점 을 볼 때는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

그러나 자신감은 가지되 자만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안전 문화의 첨경이 되는 것이다.

필자도 안전 규제 업무를 맡은 한 사람으로서 늘 긴장하며 지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같은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를 상기해 보곤 한다.

20세기 과학 기술의 부산물인 원자력이 인류에게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원자력의 남용이 인류에게 재앙 때문에 눈물을 흘렸 던 과학자들이 많이 있었다.

과학 기술의 역기능의 해소가 과학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항상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바른 태도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원자력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다가오는 세기의 미래 과학 기술이 새롭고 분명한 해답을 제시할 때까지 현재 원자력계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안전에 대한 수호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구 하는 역할까지 슬기롭게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